韓美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출장 결과

1 개 요

□ **(목 적)** 한·미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세션 발표 및 토론

※ 韓기후부/美에너지부 차관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관계자 약 50명 참석

□ **(時 / 所)** ’26. 6. 10(수), 미국 워싱턴DC

□ **(출장자)** 글로벌기술마케팅부장

2 세부 내용

가. 세션 발표 및 토론

□ 포럼 개요

○ 韓)기후환경에너지부 및 美)에너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양국 에너지 분야 정책 교류 및 기업 마케팅 활동의 場으로 2회째 개최

○ K-water는 물관리 공공기관으로서 기후부 국제협력관실 제안으로 물에너지 기술 및 미국 사업 소개 등을 위해 금번 포럼에 참석

※ ❶Energy Finance/Investment, ❷Grid Transmission/ESS, ❸Oil and Gas, Gas Power Generation 등 3개 세션으로 구성

□ 기조 발표

○ (**한국**) AI,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, 한국은 전력 인프라 제조 역량 보유 및 미국 LNG 최대 수입국으로 에너지 협력 필요

○ (**미국**) 중동발 공급망 위기, 데이터센터向 전력 수요 등으로 LNG 발전, 원자력 발전 확대 추진중으로 한국 기업 참여 기대

□ Energy Finance/Investment 세션

○ LNG 발전 및 선박, ESS 보급 등 미국측에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 정책 소개 및 한국측 대미 투자 높이 평가

○ 한국기업의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최대 제약사항은 인허가(permitting), 외국인투자심사(CFIUS) 등이 제시

구분	발언 요지
Margaux Murali (미 에너지부 국장)	- 한화, 삼성, LG 등 미국 투자 한국기업 多 - 조선(LNG 수송), 희토류, ESS 등에 관심
Micheal Johnson (JP Morgan VC)	- 쉐일혁명, 전력수요 등이 에너지 정책 동력 - 에너지 분야 1.5조달러 약정, 100억불 투자
Jay Jung (한화에너지 이사)	- 한화그룹은 미국에 300억불 투자 계획 - 한미 에너지 협력 플랫폼 역할
정명규 (기후부 과장)	- 녹색산업 진출지원 펀드 운영중 - 미국 암모니아 생산, LNG 발전 등에 투자
윤준한 (K-water 글로벌기술마케팅부장)	- 물-에너지-도시 Nexus 전략 추진 - 물에너지 해외사업 20억불 규모 참여중

나. 시장 동향 파악

□ KOTRA 워싱턴지사

○ 공공분야 입찰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Buy America法 등으로 인해 정부 조달(B2G) 사업에서 우리 기업 수주가 어려운 실정

※ 한국 기업인 에스트래픽社 교통카드 사업 수주 사례 유일

○ 해당 기관에서도 민간(B2B) 분야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이 미국측에서 호의적

□ 미국 진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

○ 남동발전, 중부발전 등 일부 발전자회사는 미국에 지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미국 에너지 사업 본격 개발중

○ 현지 진출 공공기관은 삼성전자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보유한 텍사스주에 미국 거점 마련

□ 국내 민간기업

○ 한화그룹,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대미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며, 삼성중공업도 미국 기업과 해상LNG 생산설비(FLNG) 건조 착수

○ LNG 발전, ESS, 태양광 등을 유망한 포트폴리오로 공략중이며, 에너지 사업 기회가 많은 텍사스주에 현지 법인 설치

□ 미국 투자자문사(JP Morgan)

○ 최근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주 희토류 사업(11조원 규모)의 투자 자문 수행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중

○ 수력발전 분야에서는 양수발전이 에너지 저장장치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버지니아주에서 다수의 신규 사업 개발중